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95/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날개> '이상'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아내와의 갈등 나의 태도 : 도망 나옴 나의 성격 : 나사 여럿 빠짐
#2 공간 배경 성찰	공간 배경 :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 성찰 금붕어 회택의 거리 돌아가야 함 = 체념적 수용적 태도
#3 내적 갈등	아내. 나. 돌아가야하나? 방향. 내적 갈등
#4 시간 배경 성찰	시간 배경 : 정오의 사이렌 깨달음. 내게도 희망. 야심이 있었다. 잃어버린 희망과 야심을 찾길 희망. 날개. 날아보자 = 극복 의지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내면 서술 중심이 되면, 그 내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기 벅찬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화자의 내면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빙빙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앓았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 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 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덜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1 초반부 인사배 set

아내와의 갈등

나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제시되는 성격과 내면심리

아내가 내게 억울하게 뭐라고 하지만

대꾸도 못하고

심지어 돈도 내놓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머뭇머뭇,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인물 태도 성격

아내와의 갈등 ⇨ 회피

어찌할 줄 모름 ⇨ 방향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쪼다**났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뚝**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2 배경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 : 그 시대 가장 높은 곳  
아마 자신을 성찰하고  
시대정신을 읽기에 가장 적절한 상징적 장소 같습니다.

특이 소재 : 커피

앞 장면에서 '커피'도 사실은  
자신의 정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소재이지만  
돈이 없어 그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이 소재 : 금붕어

갑자기?  
역시 상징적이죠.  
시대정신 = 회탄의 거리  
그곳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니  
무기력하고, 침전해가는 금붕어와 같은 자신의 모습

인물 - 태도 - 내면심리

성찰을 해보지만  
답도 안 나오는 인생  
금붕어 같은 인생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  
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  
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  
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  
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  
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  
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3 부부 갈등 ⇨ 내적 갈등

부부의 갈등을 보여주지만,  
그것으로 촉발되는 화자 본인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둡니다.

계속되는 방향

①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도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아난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4 시간적 배경 전환. 화자의 의지

하지만 정오의 사이렌  
갑자기 깨어남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게도 날개가 있었음이  
희망과 야심이 있었음이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소설은 끝납니다.

40.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주제 - 화자의 내면심리

당연히 ㄱ이 내면심리를 밀접히 다루니 정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디테일을 잡습니다.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좁히고 발췌독**

독백적 - 누군가와 대화 없고, 성찰, 내면심리니 당연히 독백적

현실과 단절 - 성찰하는 과정이니 당연히

의식상태 표현 - 내면 심리 표출

정답 맞네요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내적갈등을 하는데 단정적

내면심리인데 객관적

모두 틀렸습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회상이 있긴 합니다.

갈등-해소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현재 : 아내와의 갈등

성찰 : 내 인생 뭐지? 회탁의 거리. 금붕어 같은

반응 : 어떻게 하지? 방향

각성 : 나도 희망이 있었군. 날개야 다시 돌아라. 의지 화해 지향일까요?

아니면 과거와 같은 생동력 있었던 삶을 희망하는 것일까요?

주제, 정서를 잡아주시면 정확히 판단 됩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문학이니 비유는 찾기 쉬울테고(금붕어)

생각과 인상. 주제이니 역시 정답!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 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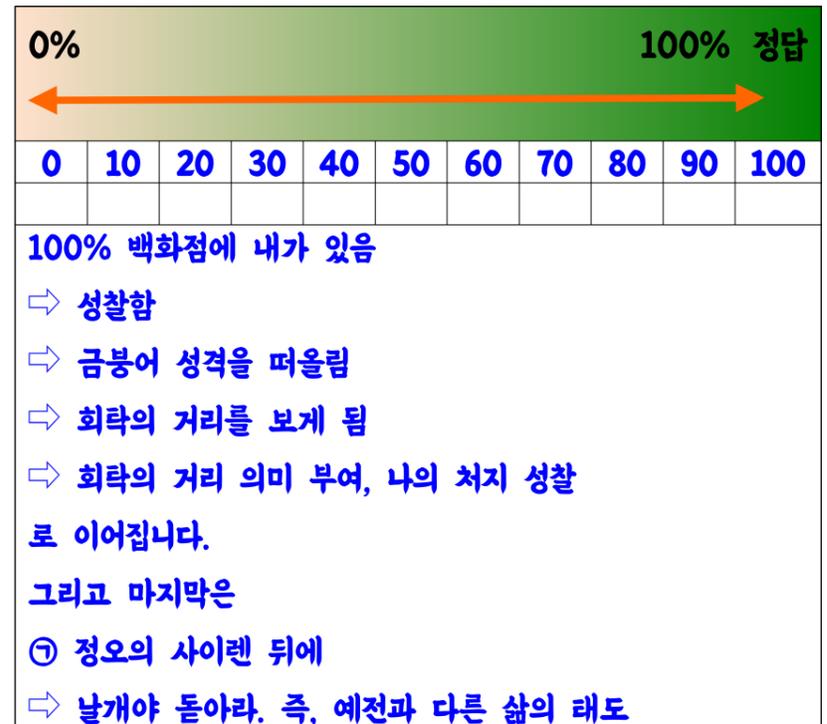
아까 보았듯이 특이한 배경.

의미부여로 이어집니다.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답 스펙트럼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선지는?

네 2번. 정답.

물론 이에 대한 해설로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여기서 '나서서' = (백화점을) 나서서

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엽적이면서, 심지어, 생략되어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힘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찾아서 연결짓는 것은

당연히 한 단어로 결정되는 + 명시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발췌독, 있는 그대로 정보 찾기를 하는 대부분에게 가능한 접근일까요?

실수, 시간... 모든 것에서 손해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저렇게 생략된 하나 하나의 정보 모두를 저 모든 지문  
정보에서 찾을만한 시간은 되나요?

제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평가원에서 의도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42.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  
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  
군.
-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  
기가 바뀐 것이겠군.

우리가 잘 읽었던  
장면 전환, 그러면서 인물의 태도 변화

성찰. 방향. 체념. 무기력. 방향에서  
날개가 돋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123선지 확인!

-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  
을 전환하게 되는군.

내적 갈등이 계속되지, 사회문제?

정답이군요!

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  
을 두고 읽어야겠군.

심리적 의미. 즉, 내면심리.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면심리'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보기부터 보면 안 되나요?

수업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보기 의존하는  
과정에서 피지컬 자체의 향상도 어렵고, 무엇보다  
요즘은 보기 자체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항  
설계를 보기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부터 보면  
당연히 작품 해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4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  
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  
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  
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  
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  
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  
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  
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아내가 현대문명이었다?

라고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보기** 바탕

갈등으로 파악 가능.

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맞는 선지!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보기** 바탕

갈등으로 파악 가능.

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정답이네요.

적극적 대결을 했으면 부부싸움 했겠죠.

소극적이니 억울해도 아무말 못하고

더 크게 싸울까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심지어 돈도 냅두고

도망치듯 나오잖아요.

적극적 대결의지? 없어요...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보기** 바탕

물론 애매합니다.

결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나?

이럴 때는 정답 스펙트럼 활용!

②번 선지 보다는 ③④⑤번 선지가 더 옳은 쪽에 가깝고

그러니 가장 잘못된 ②번 선지를!

이러면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같은 말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1 인사배 도입 세팅**

아내와의 갈등.

나는 억울함. 돈 놓고. 집 나와버림

⇨ 소극적. 체념적

**#2 공간 배경 전환 ⇨ 장면/정보가치 높은 내용 전환**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 ⇨ 성찰 ⇨ 노답 ⇨ 금붕어 + 회택의 거리 = 나. 수용적

**#3 내적갈등**

그렇다고 돌아가긴 싫음

**#4 시간 배경 전환 ⇨ 태도 전환**

희망, 날개. 돌아라

보이지죠?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1 인사배 도입 세팅**

아내와의 갈등.

나는 억울함. 돈 놓고. 집 나와버림

⇨ 소극적. 체념적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4 시간 배경 전환 ⇨ 태도 전환**

희망, 날개. 돌아라

당연히 정답 2번! 끝!